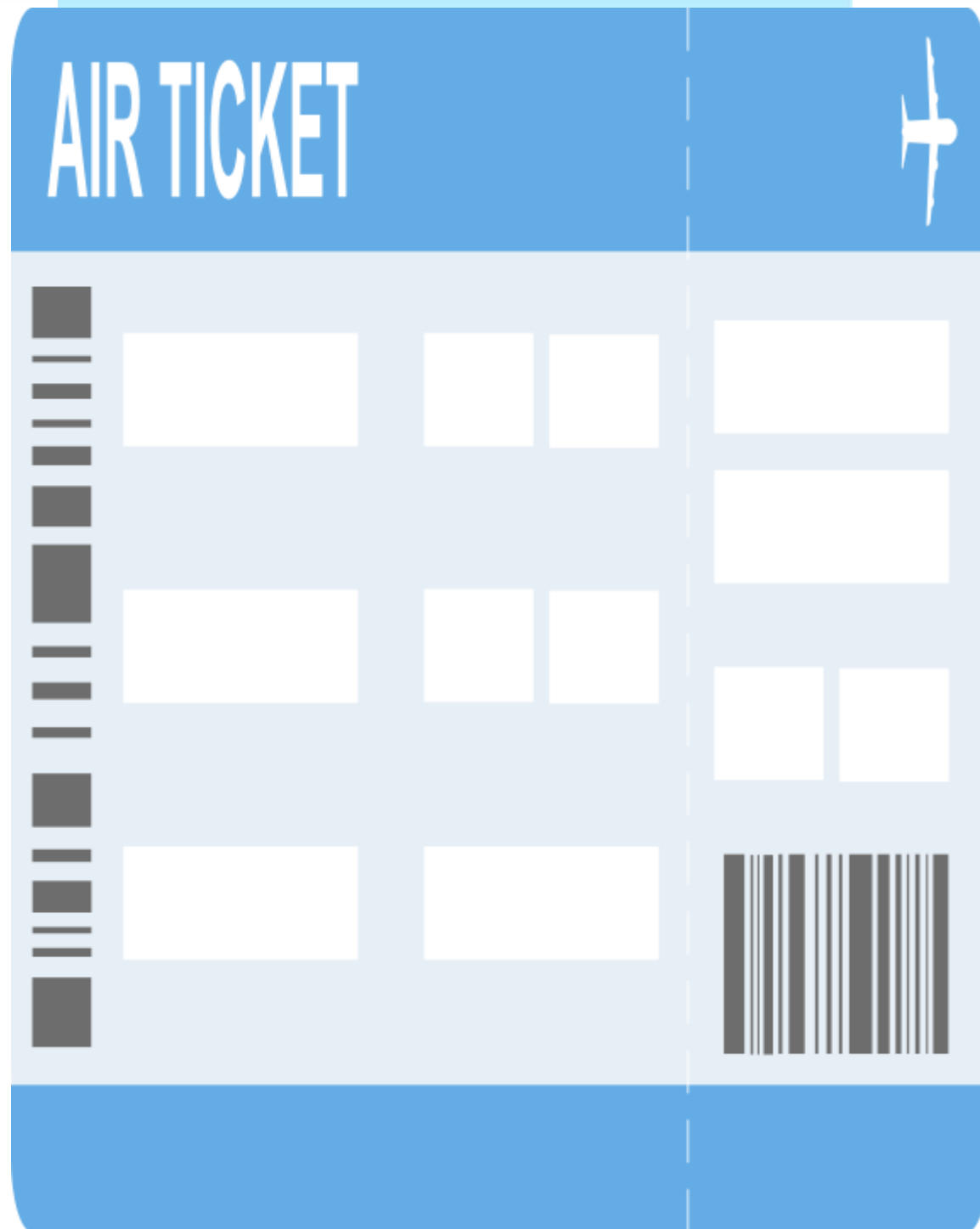


미국 명상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학술 탐방 최종보고서 - 불명탐 팀





01 항공권 사본

02 예산 사용 내역

03 탐방 일정

04 탐방 기관 방문 사진

05 탐방 후 느낀 점

06 탐방을 통한 계획 및 목표

01 항공권 사본

ASIANA AIRLINES ⁷

Electronic Ticket Itinerary & Receipt

Reservation No. **18148160**

Passenger Name: PARKJIWOOMS
 Ticket Number: 988607768629
 Reservation No.: 6FB5Q7(18148160)

Issuing Office: ASIANA AIRLINES

Itinerary

From	To	Flight	Class	Date(Day)	Departure	Arrival	Flying Time	Status	Seat
SEOUL INCHEON	LOS ANGELES	OZ202	S	22JAN24 (MON)	14:40	06:40	11H00M	OK	79E
Terminal 1	Terminal B			Layover Time					
Via		ASIANA AIRLINES OZ202		Free Baggage Allowance		2PC			
Operated by		ASIANA AIRLINES		Not Valid Before					
Marketed by		ASIANA AIRLINES		Not Valid After		22JUL24			
Fare Basis		SKXAKUSD		Not Valid After		22JUL24			
LOS ANGELES	SEOUL INCHEON	OZ201	S	03FEB24 (SAT)	11:00	17:30 +1	13H30M	OK	78E
Terminal B	Terminal 1			Layover Time					
Via		ASIANA AIRLINES OZ201		Free Baggage Allowance		2PC			
Operated by		ASIANA AIRLINES		Not Valid Before					
Marketed by		ASIANA AIRLINES		Not Valid After		22JUL24			
Fare Basis		SKXAKUSD		Not Valid After		22JUL24			

박지우 항공권 사본

예약번호 : HA2314841660

기본 정보

수선	일정만	사업자등록번호	102-07-30440
법인	한국인생리 회사	상호	한국인생리 회사
		대표자	송이선
제휴	민보유스	주소	서울 동대문구 인사동 50길 41-1(유엔타워)
접수일	2024.03.08(금)	업종 및 품목	서비스/여행업, 해외여행

스케줄 정보

항공사명 : ASIANA AIRLINES
 항공편번호 : 18148160
 예약일 : 2024.03.08
 출발지 : 서울
 도착지 : LOS ANGELES

요금 및 결제 내역

항공사명 : YANG JUNGMN

기종료	유류할증료	제세금과료	발권수수료	추가수수료	총요금
886,900원	316,200원	119,000원	10,000원	0원	1,332,100원

결제 내역

결제번호	13321007	결제 상세 내역	카드결제 1,332,100원
결제 일자	2024.03.08	결제 상세 내역	유류할증료 316,200원
결제 금액	1,332,100원	결제 상세 내역	제세금과료 119,000원
결제 일자	2024.03.08	결제 상세 내역	발권수수료 10,000원
결제 금액	1,332,100원	결제 상세 내역	추가수수료 0원
결제 일자	2024.03.08	결제 상세 내역	총결제액 1,332,100원

효전스님 항공권 사본

모두투어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스카이스캐너 이은경 (tel) e-Ticket Passenger Itinerary & Receipt

탑승객 영문명(성/이름) (Passenger Name)	OH/SEONGTANMS (MR/MS/MSTR/MISS) * 성별 및 유아 아동 표기
항공권 번호 (Ticket Number)	3503207891555 (해당 항공권번호로 항공사에 티켓 확인 가능)
항공사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NLJINH (U7GIUZ)
모두투어 예약번호 (modetour Booking Reference)	45479133

여행 정보 (Itinerary Information)

편명 (Flight) YP0101 (예약번호 U7GIUZ) Operated by YP(AIR PREMIA INC.)

	도시/공항	일시/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예약상태
출발 (Departure)	SEOUL / INCHEON	17JAN 13:30	1	N(일반석)	10:50	HK
도착 (Arrival)	LOSANGELES / LOSANGELES	17JAN 07:20	B			
운임 (Fare Basis)	NRTAPV2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Not Valid Before	17JAN24	
좌석 (Seat Number)			Not Valid After		17JAN24	
기종 (Aircraft Type)	수하물 (Baggage)		02P			

편명 (Flight) YP0102 (예약번호 U7GIUZ) Operated by YP(AIR PREMIA INC.)

	도시/공항	일시/시간	터미널	클래스	비행시간	예약상태
출발 (Departure)	LOSANGELES / LOSANGELES	26JAN 09:50	B	K(일반석)	13:20	HK
도착 (Arrival)	SEOUL / INCHEON	27JAN 16:10	1			
운임 (Fare Basis)	KRTAPV2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Not Valid Before	26JAN24	
좌석 (Seat Number)			Not Valid After		26JAN24	
기종 (Aircraft Type)	수하물 (Baggage)		02P			

e-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항공권 운임 (Ticket/Fare) [단위 : KRW]

항공운임 (Prices)	세금 (Taxes)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발권수수료 (Service Fees)	총 지불금액 (Total Amount)
924,600	119,000	316,200	10,000	1,369,800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CARD

무진스님 항공권 사본

02



예산 사용 내역 (1인당 지출 금액)

항공권 및 각종 교통비	1580400원
투어비용	1030460원 (\$769)
달마사 불사금	670000원 (\$500)

03



탐방 일정

	무진스님, 효전스님	숙소	박지우
01.17	입국 및 휴식	LA 달마사	팀원 현지 일정관리
01.18	UCLA 한국학 연구소와 불교학 연구소 방문, 인터뷰	.	서면 인터뷰 참여
01.19	UCLA 캠퍼스투어, 덕일스님 인터뷰	.	팀원 현지 일정 관리
01.20	샌프란시스코 명상센터 방문, 여래사 참배	The Atrium hotel	.
01.21	스탠포드 캠퍼스투어	LA 달마사	.
01.22	서래사, 서래대학 탐방	.	.
01.23	LA 달마사 법회 참석	.	입국, 유기견 이동봉사 인계 및 휴식
01.24	라스베거스 경유	골든 너겟 호텔	라스베거스 경유
01.25	그랜드캐년 명상	edgewater hotel	그랜드캐년 명상
01.26	LA 달마사 참배	LA 달마사	LA 달마사 참배
01.27	출국	.	

04



탐방 기관 방문 사진



UCLA 한국학연구소 방문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 인터뷰



UCLA 캠퍼스 투어 및 인터뷰

04



탐방 기관 방문 사진



샌프란시스코 명상센터 방문



여래사 참배



스탠포드 캠퍼스투어



한국불교를 경험하면서 행복했던 점이 있다면?

- 한국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승불교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덜 수 있었고, 모두 해탈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진해나가는 분위기와 환경은 수행에 더욱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선교겸수' 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불교를 적용할 수 있었다. 덕분에 한국불교를 경험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나라의 불교 전통이 있음에도 미국에서 한국 불교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 한국의 선 전통 같은 경우에는 화두를 짚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해결하는 시도보다는 화두를 진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마음을 평화로운 상태에서 진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일생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러야한다고 본 것인데 이러한 점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가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우선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한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자신들의 문화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해 동화되고 흡수된 측면이 많았다. 한국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유구한 역사와 발전을 거쳐왔으니 그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전통을 지켜나간다면 세계 속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04

 UCLA 인터뷰

앞으로 한국불교에 필요한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불교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해 제가 질문하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무엇을 배운다기 보다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한다. 이런 측면에서 스님들이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 방식은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스님들이 자신의 경험을, 혹은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당을 예시로 들자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상담하는 소임과 좀더 내면에 집중하여 묵상에 잠기는 소임의 경계가 매우 분명했다.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많은 시간 동안 스님들은 대중들과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는 기술과 경험이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대중들과 스님들이 소통하고, 대중들과 함께한다면 불도를 함께 이루는 데 그보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었던 점을 무엇인가?

학생들을 위한 교류를 마련하고 제공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한국학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것보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고자 하는 것. 신문에 나오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런 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한국학이 커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 학생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04



탐방 기관 방문 사진



서래사, 서래대학 탐방



유기견 이동봉사활동

04



탐방 기관 방문 사진



그랜드캐년에서
미얀마 스님들과의 명상



LA 달마사 참배

04



탐방을 통해 느낀 점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민족들이 모인 LA에서 한국의 전통을 가진 사찰과 불교문화를 현지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불교를 전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전공한다고 하면 전통적인 모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삶의 일부'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졸업해서도 불교적 전통을 가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적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알리는 모습이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동국대학교 장학팀에 감사드립니다. - 박지우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세계적인 기업에서 명상을 적극 활용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명상이 불교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서양의 명상은 불교적 사상이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명상을 통해 마음에 평화와 내적 자유를 얻고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학술탐방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상에 대해서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지만, 기독교 문화가 강한 미국에서 한국사찰을 세우고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현지에 계신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스님이기에 타국에서 불교의 끈을 놓지 않고 애쓰고 계신 스님과 불자님들의 모습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탐방이 스님으로서 제 삶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효전스님

04



탐방을 통해 느낀 점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무상, 고, 무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면에서 미국은 다양성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소중한 가르침이 더욱더 다방면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불교가 더욱 정체성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재고와 수정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학술 탐방을 통해 강한 원력과 바른 모습으로 연구하고 포교하고 전법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국대학교 장학팀에 감사드립니다. - 무진스님

06



탐방을 통한 계획 및 목표 박지우



전통중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통과 그를 바탕으로 발전한 불교의 문화에 대한 뿌리와 근원을 중요시 여기는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전통에 대한 공부를 성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전법

우리나라에서의 전법 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국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고, 플랫폼을 갖추면서 불, 법, 승이 하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정진

팀원 모두 불교를 전공했다는 자긍심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교가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스터디를 진행하며 대학원 공부를 해나가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06



탐방을 통한 계획 및 목표

-무진스님



해외학술탐방을 통해 대학원에서 제 연구방향과 수행의 결에 대해 즐거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사과정에서 선교겸수, 정혜쌍수의 사상과 수행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박사과정은 미국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해 불교의 사상이 현실에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06



탐방을 통한 계획 및 목표

-효전스님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세계적인 기업에서 명상을 적극 활용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명상이 불교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서양의 명상은 불교적 사상이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명상을 통해 마음에 평화와 내적 자유를 얻고 있음에 감사하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상에 대해서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지만, 기독교 문화가 강한 미국에서 한국사찰을 세우고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현지에 계신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스님이기에 타국에서 불교의 끈을 놓지 않고 애쓰고 계신 스님과 불자님들의 모습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탐방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해외에서 지내는 한인 불자들에게 전법을 펼치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금보다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